

멜추크의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 연구*

홍재성·박동호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1. 머리말

의미·텍스트 이론 *théorie sens-texte/meaning-text theory*은 1960년대 I. Mel'čuk과 그의 동료들¹⁾에 의해 제창된 후 러시아어, 불어,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의 어휘기술에 적용되면서 발전해 왔다. 이 이론이 지향하는 바는 “의미를 텍스트로, 텍스트를 의미로 전환하는 대응규칙의 체계”로서 언어를 모형화하는 것이다²⁾. 의미·텍스트 이론에 의해서 구축된 자연언어의 총체적 표상 모형이 바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 *modèle sens-texte*이다.

이 모형은 종속문법을 채택하여 성분구조문법 중심의 언어학과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문장의 위계적 구조를 명시하는 하나의 방법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어떠한 순서로 결합하여 성분을 이루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장의 성분구조를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통사론의 중심 과제

* 본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공동연구지원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본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수집, 원고정리와 교열작업에는 불어불문학과 고길수 조교가 참여하였다.

- 1) I. Mel'čuk(1973), (1974). I. Mel'čuk & A. K. Zolkovskij(1971). Y. D. Apresyan *et al.*(1969).
- 2) A. Nakhimovsky(1983, 1990)는 변형문법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과 달리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설명적 적정성이 아닌 기술적 적정성의 추구에 만족하여 개별 언어를 총체적·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언어학 연구의 핵심적 작업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는 문장의 성분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며 이는 Bloomfield, Harris, Chomsky로 이어지는 20세기 미국 언어학계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 문장의 성분구조, 즉 한 통사 범주가 다른 어떤 통사 범주들로 이루어지는가를 명시하는 규칙이 구구조규칙이며 문장을 생성하는 장치로 구구조규칙을 사용하는 문법이 구구조문법이며 이를 성분구조 문법이라고도 한다. 한 언어의 모든 문법적인 문장들을 생성해 내는 장치를 가정하는 생성문법은 구구조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분 또는 성분구조라는 개념에 의해 문장의 위계적 구조가 전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문장에서 두 요소가 결합하여 성분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둘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이것에 종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장의 위계적 구조를 명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문장 내의 한 단어가 어떤 단어에 종속하는지, 즉 종속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 입각해서 성립된 문법 모형을 종속문법(또는 의존문법)이라 한다. 종속문법에서의 문장의 구조는 지배적 어휘와 이에 종속되는 어휘 사이의 지배-종속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문장의 구조는 지배적 어휘의 어휘·의미적 특성에 따른 종속 논항³⁾의 수와 그 결합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통사 규칙에 따른 단어들의 결합체인 구에 주목하는 성분구조 문법과는 달리 종속 문법에서는 어휘·의미적으로 논항을 갖는 어휘에 주목한다. 이는 그 동안 주류 언어학에서 부차적 중요성만을 부여받던 어휘부에 대한 집중적 연구의 토대가 되었고 따라서 종속문법의 방법론을 채택한 의미·텍스트 이론은 광범위하고 정밀한 어휘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다⁴⁾.

3) 본고에서 논항은 actant와 argument을 모두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서의 두 개념은 구분된다. 우선 actant은 모든 지배적 단위에 필연적으로 내포되는 종속요소를 가리킨다. 이것은 다시 의미 층위의 종속요소와 통사 층위의 종속요소로 구분된다. 반면 argument은 전통적으로 술어prédicat로 분류되는 단위들의 종속요소들만을 지칭한다.

4) 종속문법은 Tesnière(1969)에서 시작되어 독일 등 유럽 언어학계(Heringer, 1970; Hudson, 1993)에서 발전되었다. 격지배 등 전통문법의 여러 개념에서도 의존문법의 싹을 찾을 수 있다. 의존문법은 러시아어에서와 같이 단어가 풍부한 형태 변화를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언어 형식주의가 아닌 기능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능문법 입장에서는 언어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도구로 정의하며, 따라서 문장을 생성, 이해, 판단하는 언어 능력을 강조하는 형식문법과는 달리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한다. 언어 연구를 언어수행의 관점에서 행하는 기능문법에서는 화용론과의 관련하에 의미론과 통사론이 연구되며 형식문법과는 달리 통사보다는 의미와 어휘의 중요성이 부각된다⁵⁾. 기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서는 문장의 의미는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 구조는 여러 하위부분으로 분할된다. 이 하위부분들 가운데 지배적 의미부분은 지배 어휘로 실현되며 개별 의미부분들에는 개별 어휘가 대응하며 이 지배 어휘와 개별 어휘를 바탕으로 문장의 통사적 구조가 도출된다. 따라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서는 지금까지 분리·연구되어 왔던 의미와 통사는 어휘를 매개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어휘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한층 더 강화시켜 준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서 구현하려는 대응 관계는 의미에서 텍스트로의, 그리고 텍스트에서 의미로의 양방향 관계(relation bidirectionnelle)이다. 그러나 의미·텍스트 이론은 개발 초기부터 컴퓨터를 통한 텍스트 생성을 목표로 해 왔으며 Mel'čuk 또한 기존 언어학의 해석적 입장과는 달리 화자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⁶⁾. 즉, 작금의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의미에서 텍스트로의 대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하나의 의미가 여러 개의 텍스트로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과 어휘들의 제약적 결합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는 도구가 환언체계(système de paraphrases/paraphrasing system)와 어휘함수(fonction lexicale/lexical function)이다. 특히 어휘함수는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 내에서 개별 어휘의 계열관계와 제약적

보이고 문장 내에 자유롭게 위치하는 언어를 분석하는데 흔히 사용된다. 반면, 성분구조 문법은 단어의 형태소 변화가 적고 품사에 따른 문장 내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영어와 같은 언어 분석에 주로 사용된다.

5) S. Dik(1978), (1980), (1989).

6) I. Mel'čuk(1988b).

통합관계를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이용된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어휘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한 어휘가 다른 어휘와 맺는 계열적·통합적 관계를 망라하는 정밀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는데 의미·텍스트 이론을 어휘부에 적용하여 구축된 새로운 형식의 사전이 결합설명 사전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 explicative and combinatory dictionary* 이며⁷⁾ 그 예로는 러시아어 결합설명 사전⁸⁾과 현대프랑스어 결합설명 사전⁹⁾이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어 어휘요소에 대한 한국어 사용자들의 어휘지식을 충실하게 표상할 수 있는 한국어 사전 편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비적 연구로서의 한국어 어휘기술 및 어휘자료체 *base de données lexicales* 구축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언어학적으로 의의있고 실용성도 높은 Mel'čuk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구축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이론과 방법론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인간 언어의 핵심적 국면에 대한 총체적인 표상모형이라는 점에서 생성문법을 위시한 현대의 다른 주요 언어모형과 비견될 수 있으나, 근래까지도 널리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비주류 언어학의 한 분파로 간주되어 왔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복수 표상층위 *niveau de représentation*를 가정하나 의미론에 기초하며 종속문법 모형을 수용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성분구조 문법을 흡수한 통사론 중심의 생성문법의 광범위한 영향력 때문에 그리 각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언어학계 내외에서 어휘부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전형적인 어휘부 중심의 언어표상 모형인 M. Gross의 어휘문법 *lexique-grammaire*¹⁰⁾과 더불어, 통사부 중심 이론에 대한 대안, 자연 언어 처리 *traitement automatique des langues naturelles* 영역에의 기여, 또는 언어 교육이나 일반 언어사전 편찬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으로 폭넓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은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 대한 개괄적인

7) 결합설명 사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병근·박진호(2000)을 참고할 것.

8) I. Mel'čuk et A. Zholkovskij(1984).

9) I. Mel'čuk *et al.*(1984), (1988), (1992).

10) M. Gross(1975).

설명에 해당한다. 2.1에서는 이 모형의 세 가지 기본 전제인 다대다 대응관계 *correspondance multi-multivoque*, 기능적 모형 *modèle fonctionnel*, 다층적 구조의 모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다. 2.2는 이 모형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2.2.1는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표상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의미표상, 심층통사표상, 표층통사표상, 심층형태표상, 표층형태표상, 심층음운표상, 표층통사표상의 총 일곱 개의 표상이 소개될 것이며 2.2.2에서는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주요 부분 *composante principale*이 다루어질 것이다. 3절은 어휘함수에 관한 것이며 4절에서는 환언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5절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이 제시될 것이다.

2.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

인간의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은 의미 *sens*, 형태 *forme*, 대응관계 *correspondence* 라는 핵심적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의미는 심적 실체 *réalité psychique*로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내용을 가리킨다. 형태는 물리적 실체 *réalité physique*로서 청자의 감각기관을 통해 감지되는 음성 또는 문자 형태인 텍스트에 해당한다.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정보의 수와 발화할 수 있는 텍스트의 수가 무한하다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의미와 텍스트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상이한 개체들로 구성된 집합의 형태를 갖는다. 이 두 집합 사이에는 필연적이며 논리적인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언어활동에서는 의미는 텍스트에, 텍스트는 의미에 대응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개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유한수의 언어규칙이다. 이러한 개별 언어의 규칙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모형이 바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텍스트라는 용어는 일반적이 아닌 기술적인 의미를 갖는다. 우선 텍스트는 응집성 *cohésion*과 일관성 *cohérence*으로 정의되는 텍스트 문법의 그것이 아니라 표출되는 모든 언어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의미는 동일한 정보 내용을 갖는 텍스트들이 보여주는 동의성 *synonymi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이 의미는 환언관계에 있는 문장들이 갖는 불변의 의미에 해당하며

논리적 추론이나 백과사전적 지식의 도움 없이 언어 능력 *compétence langagière* 만으로 도출되는 순수한 언어적 의미 *sens langagier*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두 문장의 동의성은 언어능력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1) ㄱ. *Le peuple allemand luttait contre le fascisme*(독일인들은 파시즘에 맞서 싸웠다).

ㄴ. *Des Alpes à la Mer du Nord, du Rhin à l'Oder, le peuple continuait la lutte d'Edgar André*¹¹⁾(알프스에서 북해까지, 라인강에서 오데르강까지, 사람들은 에드가 앙드레의 투쟁을 계속했다).

의미와 텍스트는 내적 구조를 가지며 메타언어 *métalangage*를 통해 기술될 수 있는 실체들이다. 메타언어를 사용하여 이들의 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의미표상 *représentation sémantique*과 음운표상 *représentation phonologique*이다. 즉,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의미와 텍스트 사이의 대응 관계는 의미표상과 음운표상의 대응 내에서 관찰된다. 엄격한 언어학적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이 모형에서 메타언어에 의한 표상을 사용하는 것은 정밀한 분석을 위해 화학에서 원소기호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2.1.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전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자연언어에 대한 연구와 기술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점을 전제하고 있다.

(가) 다대다 대응 관계

보통의 발화상황에서 화자들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며 또한 하나의 문장은 중의적으로 사용되어 여러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미와 텍스트는 언어의 동의성과 중의성 *ambiguïté*

11) I. Mel'čuk *et al.*(1992) p. 11.

으로 인해 일대일 대응이 아닌 다대다 대응 관계를 맺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quad \text{언어(Langue)} \\ \{ \text{의미표상}i \} \langle \text{-----} \rangle \{ \text{음운표상}j \} \quad | \quad 0 < i, j \leq \infty$$

(나) 기능적 모형

이 모형은 입력과 출력만이 기술되고 그 내부구조, 즉 입력에서 출력이 생성되는 메카니즘은 관찰할 수 없는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입력과 출력의 대응을 모사하는 *simuler* 규칙들의 체계로 구성되는 기능적 모형이며, 일종의 인공두뇌적 모형 *modèle cybernétique*이다. 이런 관점에서 심층구조에서 표층구조로의 이행되는 생성 메카니즘을 가정하는 변형생성문법과는 대조된다. 변형생성문법이 생성 과정을 표상하는 동태적인 규칙들을 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의미와 텍스트의 대응 관계만을 포착 가능하게 하는 정태적인 체계 *système statique*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의미·텍스트 모형은 한 언어의 어휘와 다른 언어의 어휘 사이의 대응관계를 보여주는 이개어 사전과 비교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다) 다층적 구조로서의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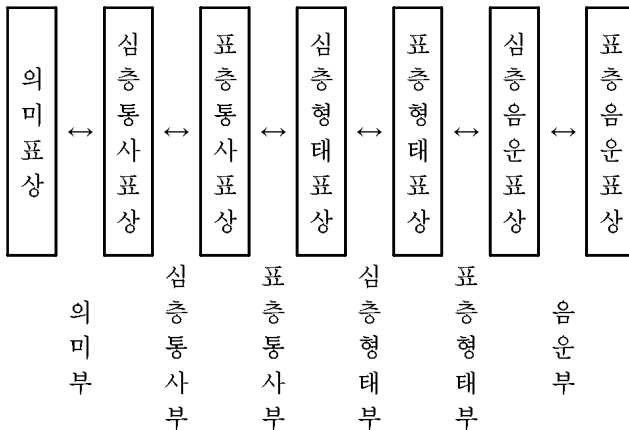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의미표상과 음운표상의 대응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이어서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대응을 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의미표상과 음운표상은 그 내적 구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준다. 의미표상은 의미성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망상 *réseau* 구조를 갖는다면 음성표상은 음성 또는 문자 형태들이 선적으로 전후 연결된 연쇄 *chaîne*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망상 구조와 연쇄 구조를 매개하는 중간단계의 설정이 요구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통사표상 *représentation syntaxique*과 형태표상 *représentation morphologique*이다. 통사표상은 의미표상에 제시되는 의미성분들간의 지배 관계를 수형도 *arbre* 구조의 어휘 지배관계로 제시한다. 이를 다시 선적인 단어와 구의 구조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형태표상이

다. 또한 의미표상을 제외한 나머지 표상들은 의미를 지향하는 심층표상 *représentation profonde*과 텍스트를 지향하는 표층표상 *représentation de surface*의 두 부분으로 모두 분할된다.

이와 같이 모든 발화체는 일곱 단계의 표상으로 구성된다. 인접 표상들은 상호간에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맺으며 양방향 화살표가 의미하듯이(아래 그림 참고) 양방향 관계를 맺는다. 일곱 개의 표상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 고유한 메타언어와 메카니즘을 통해 이를 나타낸다. 이 점에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동일한 형식언어와 메카니즘을 사용하여 기저구조와 표층구조의 다른 의미정보를 약호화하는 변형생성문법과 구분된다.

인접 표상들간의 대응관계는 각기 여섯 개 주요부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전통언어학의 제 분야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은 인접 표상의 구성요소들을 대응시키는 규칙들로 구성된다. 이제까지 간략하게 설명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각 표상과 부분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3)



지금까지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기본 전제와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부터는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각 표상 단계와 주요부분에 대해 구체적으

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이론과 방법론을 검토하는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한국어 어휘 기술 및 어휘부 구축이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 도구가 될 수 있는 어휘함수와 환언체계를 연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표상과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2.2.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구성

2.2.1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표상 단계

전술한 바와 같이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서는 모든 발화 \acute{e} nonc \acute{e} 가 의미, 통사, 형태, 음운 단계로 표상된다. 이들 표상은 발화의 제 국면들에 해당하며, 개별 국면들이 갖는 구조는 상이한 메타언어에 의해 형식화된다. 메타언어는 그것이 기술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개별 표상들은 동일한 정보 내용, 즉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독자적인 메타언어와 구조를 필요로 한다.

심적 실체인 의미와 물리적 실체인 텍스트간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일련의 표상들은 전자가 후자에 대응되기 위해 부과되는 언어적 제약, 즉 문법적 제약을 구체화한다. 이 때, 각 표상들이 나타내는 정보적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n+1$ 단계에서 구체화되는 언어적 사실들은 이미 n 단계의 표상에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 다음 단계로의 이행은 이 단계가 갖는 의미를 발화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문법적 제약의 구체화일 뿐이다.

개별 표상은 언어적 사실들을 표상하는 하위구조들의 집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단계가 갖는 성격에 따라 부과되는 국면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를 기술하는 하위구조의 수가 달라진다. 개별 표상을 구성하는 하위구조들 중의 하나가 주요구조이며 여타의 구조들은 주요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을 나타낸다.

(가) 의미표상 *représentation sémantique*

의미표상이란 발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즉 환언관계에 있는 여러 발화들이 갖는 불변의 동일한 의미를 표상하는 단계이다¹²⁾. 발화의 의미는 핵심 정보

12) 의미표상으로 표시되는 의미는 문장들 사이의 존재할 수 있는 동의성에 근거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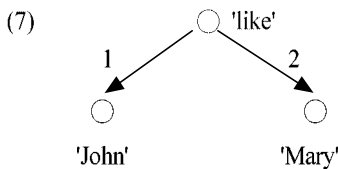
와 이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정보로 이루어진다. 이를 반영하여 의미표상은 핵심 정보에 해당하는 상황 의미sens situationnel를 표상하는 의미구조structure sémantique, 발화의 정보 구성 체계를 표상하는 의미-의사소통구조structure sémantico-communicative, 발화의 문체·수사적인 정보를 표상하는 의미-수사구조structure sémantico-rhétorique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붙여 문장 (4)의 의미표상은 (5)와 같이 표시된다.

(4) Le style des persécutions policières des gens de lettres en Union Soviétique a évidemment connu, depuis un demi-siècle, des changements sérieux.

(5) 부록의 의미표상 참고

의미구조는 마디noeud와 가지branche로 구성되는 의미망réseau sémantique의 형태로 제시된다. 마디에는 의미를 이루는 각 부분에 해당하는 의미소sémantème가 나타난다. 예문 (6)의 의미구조는 (7)과 같이 표상된다.

(6) John likes Mary.



의미소는 논항의 유무에 따라 함수자foncteur와 사물명nom d'objet로 나뉘며 합수자는 다시 술어prédicat, 수량사quantifieur, 논리적 연결사connecteur logique로 나뉜다.

이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이 다대다 대응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화자의 관점을 우위에 둔다는 점에서 하나의 의미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실현된다. 즉, 이 모형에서의 의미는 산출적 관점에서의 동의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8) 함수자

- ㄱ. 술어 : 관계, 속성, 행위, 상태, 사건 등을 나타내는 의미소
- ㄴ. 수량사 : ‘모든’, ‘있다’, 모든 수사¹³⁾
- ㄷ. 논리적 연결사 : ‘그리고’, ‘또는’, ‘만약’, ‘따라서’, ‘안’ 또는 ‘못’

(9) 사물명 : 모든 고유명사와 ‘해’, ‘달’ 등의 보통구상명사의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소

(7)에서 볼 수 있듯이 예문 (6)의 함수자는 ‘like2’이며 ‘John’과 ‘Mary’는 사물명이다. 함수자 옆의 숫자는 함수자가 취하는 논항의 수를 나타낸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문장 (10)을 표상하기 위해서는 함수자 ‘discover2’, ‘disappear1’, ‘belong to2’, ‘be the moment of’, ‘be before2’들이 필요하다. 이 경우, ‘Mary’와 ‘flask’는 사물명이다.

(10) Mary discovered the loss of her flask.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가지는 함수자와 그 의미적 논항actant sémantique을 연결하며 그 관계를 표상하는 역할을 한다. 가지는 함수자에서만 출발하여 다른 함수자나 사물명에 도달한다. 가지의 수는 함수자에 의해 결정되고, 가지에 첨가된 숫자는 의미적 논항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 숫자는 의미적 논항들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논항의 의미 역할과는 무관하다.

의미-의사소통구조는 정보내용의 제시 순서, 전제, 강조 등과 같은 정보의 구성 체계를 표상하고 의미-수사구조는 문체·수사적 특징들을 표상한다.

(나) 심층통사표상représentation syntaxique profonde

의미로부터 파생되는 통사구조를 표상하는 단계로, 심층통사구조structure syntaxique profonde, 심층통사-의사소통구조structure syntaxico-communicative

13) 의미는 홑따옴표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예를들어 ‘먹다’는 먹이라는 어휘의 의미를 나타낸다.

profonde, 심층통사-조용구조structure syntaxico-anaphorique profonde, 심층통사-음조구조structure syntaxico-prosodique profonde로 구성된다. 문장 (4)의 심층통사표상은 (11)으로 표시된다.

(11) 부록의 심층통사표상 참고

이 표상 단계의 주요구조인 심층통사구조는 어휘들간의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종속문법의 수형도 모형을 통해서 제시된다. 수형도의 마디는 편의상 자연언어의 어휘소lexème로 표시된다. 이 어휘소를 심층 어휘소lexème profond라 부르며 실제 자연언어 어휘소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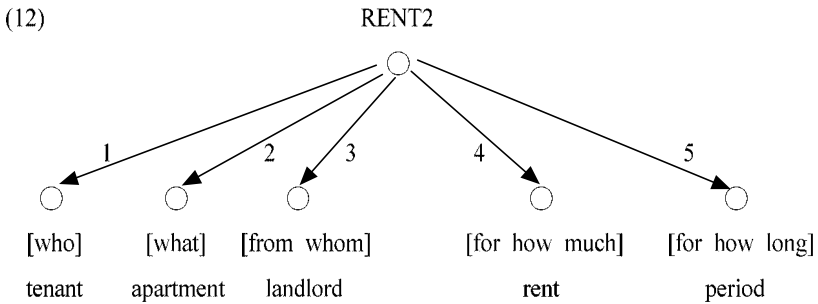
- ㄱ. 의미가 온전한 어휘소이다 : 전치사나 조사, 격변화어의 격표지, *that, que* 등의 보문 표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비어 있는 어휘소lexème vide는 심층통사구조에 나타나지 않는다.
- ㄴ. 가상 어휘소lexème fictif이다 :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파생체계를 통해 가정할 수 있는 어휘소나 특수한 통사구조로 표현되는 의미를 표상하기 위해 가정할 수 있는 어휘소이다. 불어의 경우 *compromis*로부터 파생체계를 통해 가정할 수 있는 어휘소인 *COMPROMISER가 이에 해당한다.
- ㄷ. 숙어소phrasème일 수 있다 : *kick the bucket*이나 *casser sa pipe*, 꼴로 가다와 같이 여러 어휘 단위가 모여 하나의 의미를 구성하는 숙어표현은 심층통사구조에서 하나의 어휘소로, 따라서 하나의 마디로 표상된다.
- ㄹ. 대명사 등의 조용소적 표현은 심층통사구조에 표상되지 않는다 : 조용관계는 심층통사-조용구조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선행사적인 어휘소만이 나타나며 대명사, 관계사 등은 심층통사구조에 나타나지 않는다.
- ㅁ. 다른 어휘소에 의해 통사적으로 선택·결합되는 어휘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¹⁴⁾ : 어휘소들 간의 이와 같은 특수한 결합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어휘

14) 심층통사표상은 의미표상과의 관계에 의해 구축된다. 따라서 심층 어휘소는 의미 표상에 나타난 의미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의미표상에 의해 선택되지 않는, 다시 말해 의미적으로 선택되지 않고 통사적으로 선택되는 어휘소들은 심층 어휘소에

함수라는 개념이 사용된다¹⁵⁾.

가지는 마디들간의 지배관계에 해당하는 심층통사관계relation syntaxique profonde를 나타낸다. 심층통사관계는 지배어와 종속어가 맺는 다음과 같은 9개의 이항관계relation binaire로 표시된다.

1-6 : 함수자와 그 논항의 관계를 나타낸다. 동사-주어, 동사-목적어, 동사-보어 뿐만 아니라 이 관계의 변형구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RENT2 동사는 그의 논항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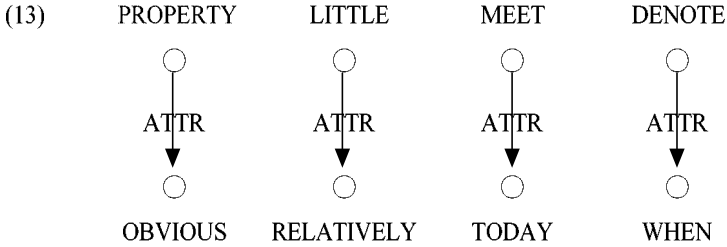


의미표상과는 달리 여기서 사용되는 심층통사관계 논항의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동일한 의미 논항을 사용하는 통사구조의 부류를 지칭한다. 숫자 1은 함수자의 첫째 논항을 나타내는 문법적 주어와 그의 변형형태들을, 그리고 2-6은 함수자의 둘째에서 여섯째까지의 논항을 나타내는 목적어와 보어들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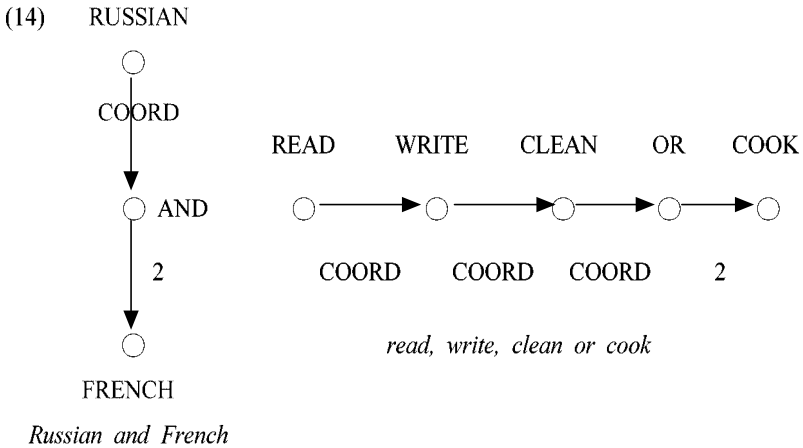
7 : 모든 종류의 수식어, 상황보어, 속사 등의 수식관계relation modificative를 나타내며 ATTR로 표시한다.

포함될 수 없다.

15) 어휘함수는 본고의 3절에서 개략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병근·박진호(2000)를 참고할 것.



8 : 좌측 어휘소가 우측 어휘소의 통사적 지배어가 되는¹⁶⁾ 모든 구문의 대등접속관계(relation coordinative)를 나타내며 COORD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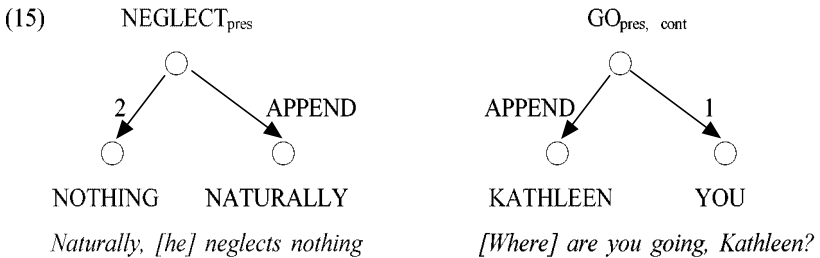


9 : 동격, 괄호 표현, 감탄구, 직접화법 등의 부가관계(relation appentitive)를 나타

16) 대등접속구문에서 좌측 요소를 지배어로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Mel'čuk 1988b, p. 27).

- ㄱ. X and Y에서 세 요소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되어 있지 않다.
- ㄴ. X and Y에서 and는 결코 지배어가 될 수 없다. 이는 X and Y의 통사적 분포가 and의 통사적 분포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ㄷ. X and Y의 통사적 분포는 X에 의해 결정되며 and Y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 ㄹ. and Y의 통사적 분포는 and에 의해 결정되며 Y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내며 APPEND로 표시한다.



심층통사-의사소통구조는 문장을 주제thème와 서술rhème로 구분하여 특화하며 심층통사-조용구조는 공지칭관계coréférentialité를 표시하고 심층통사-음조구조는 음조와 관련된 모든 의미를 표상한다.

(다) 표층통사표상représentation syntaxique de surface

문장의 표면 형태인 발화가 갖는 통사구조를 표상하며, 표층통사구조structure syntaxique de surface, 표층통사-의사소통구조structure syntaxico-communicative de surface, 표층통사-조용구조structure syntaxico-anaphorique de surface, 표층통사-음조구조structure syntaxico-prosodique de surface로 구성된다. 문장 (4)의 표층통사표상은 (16)으로 표상된다.

(16) 부록의 표층통사표상 참고

표층통사구조는 심층통사구조와 동일한 수형도 모형으로 제시되나 그 마디와 가지가 보여주는 어휘소들 간의 통사관계는 심층통사구조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표층통사구조에 나타나는 어휘소는 발화상의 실제 어휘들이며 따라서 심층통사표상의 마디에 나타나는 어휘소와는 구분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ㄱ. 대명사, 조동사, 접속사, 전치사 등과 같이 의미가 비어있는 어휘소를 포함

한다.

- ㄴ. 속어소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어휘소로 나뉘어 각각 하나의 마디를 구성한다.
- ㄷ. 어휘함수의 값이 산정되며, 함수 논항과 함수의 값이 각각 마디를 구성한다.
- ㄹ. 심층통사구조의 모든 가상 어휘소는 표층통사구조에서는 표층통사관계에 의해 표시되므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
- ㅁ. 모든 대명사화pronominalisation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표층통사구조의 마디는 대명사로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표층통사구조의 마디와 문장의 실제 단어형태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표층통사구조의 어휘소는 발화상에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표층통사구조상의 두 마디가 발화에서는 중합된 형태forme amalgamée¹⁷⁾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실제 어휘와는 차이를 보여준다.

표층통사구조의 가지는 기술 대상이 되는 언어의 표층통사관계를 나타낸다. 이 가운데 표층통사논항의 관계는 결합·설명 사전의 지배도식schéma de régime/government pattern에 제시된다¹⁸⁾.

(라) 심층형태표상représentation morphologique profonde

표층통사표상으로 실현되는 문장을 단어형태mot-forme와 구로 나누며, 구를 구성하는 단어형태들에 대해 통사적으로 결정되는 문법소grammème¹⁹⁾를 구체화

17) 불어의 전치사 'à', 'de'와 관사의 예를 들 수 있다.

à + le(s) -> au(x)

de + le -> du, de + les -> des

18) I. Mel'čuk et al.(1984, 1988, 1992), I. Mel'čuk, A. Clas et A. Polguère(1995) 참조.

19) 문법소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i) 의미적 문법소 : 명사의 수, 시제 등과 같이 이미 의미표상에 나타나는 것들로 어휘로 실현되지 않고 접사, 어미로 실현된다.

ii) 통사적 문법소 : 명사의 격, 형용사의 성·수 일치, 동사의 성·수 일치 등과 같이 통사적으로 결정된다.

하여 문장의 선적 배열을 표상하는 단계이다. 심층형태표상은 심층형태구조 *structure morphologique profonde*, 심층형태-음조구조 *structure morphologico-prosodique profonde*로 구성된다. 문장 (4)의 심층형태표상은 (17)과 같이 표상된다.

(17) 부록의 심층형태표상 참고

(마) 표층형태표상 *représentation morphologique de surface*

심층형태표상과 유사하나, 단어형태에 첨가된 문법소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여 그 내적 구성을 표상한다. 표층형태구조 *structure morphologique de surface*, 표층형태-음조구조 *structure morphologico-prosodique de surface*로 구성된다. 문장 (4)의 표층형태표상은 (18)과 같이 표상된다.

(18) 부록의 표층형태표상 참고

(바) 심층음운표상 *représentation phonologique profonde*

(사) 표층음운표상 *représentation phonologique de surface*

이 두 층위의 표상은 Mel'čuk의 논저들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어, 본고에서는 예시를 생략한다.

이제까지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을 구성하는 7개의 표상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인접 표상들을 대응시키는 6개 주요부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2.2.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구성부

전술했듯이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서는 모든 문장이 7 단계로 표상된다. 표상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접 표상들은 상호 대응된다. 그러나 이들의 대응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들을 정밀하고 체

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장치가 의미부 *composante sémantique*, 심층통사부 *composante syntaxique profonde*, 표층통사부 *composante syntaxique de surface*, 심층형태부 *composante morphologique profonde*, 표층형태부 *composante morphologique de surface*, 심층음운부 *composante phonologique profonde*로 되어있는 6개의 주요 구성부이다.

개별 구성부는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일련의 연산 *opération*과 그 하위규칙의 집합으로 구성되어있다. 규칙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된다.

(19) 'X \Leftrightarrow Y | C'

X는 n단계의, Y는 n+1단계 표상의 구성요소들이며, C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다. 이 규칙들은 변형생성문법의 규칙과는 달리 동태적 *dynamique*이 아닌 정태적 *statique*인 성격을 지니며, X와 Y는 어떠한 변형의 과정도 겪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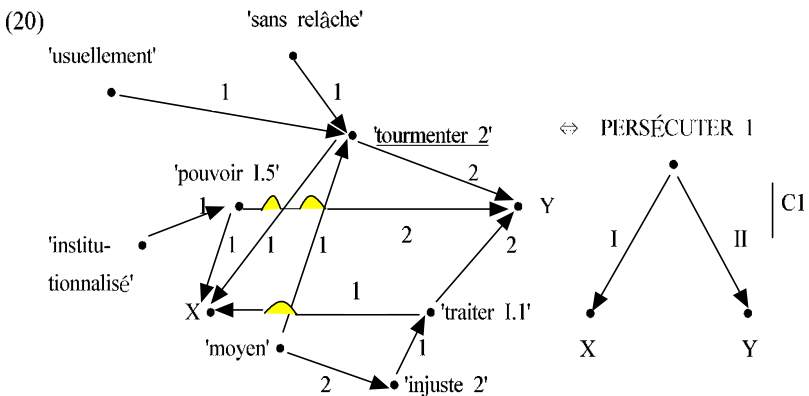
(가) 의미부

8개의 조작과 그 하위규칙들을 통해 의미표상과 심층통사표상 사이의 대응관계를 구축하는 구성부이다. 8개의 조작은 다음과 같다.

1. 문장화 : 원래의 의미표상을 하위 의미표상들로 나누는 연산이다. 이 경우, 하위 의미표상들의 합이 원래의 의미표상이 되며 각각의 하위 의미표상은 의미의 크기에 따라 문장에 대응된다. 언어에 따라 문장의 길이나 문장 속에 담을 수 있는 의미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위해서는 언어 고유의 그리고 문체에 따른 규칙들이 필요하다.
2. 어휘화 : 초기 의미망에 나타나는 의미단위들 *unité sémantique*을 묶는 의미 규칙 *règle sémantique*에 의해 심층어휘소 *lexème profond*를 선택하는 연산이다. 이 경우 의미단위의 묶음은 해당 언어의 어휘소 단위 *unité lexémique*에 의해 표현된다. 이 연산은 보편어휘소의 네 유형에 대응하는 네 개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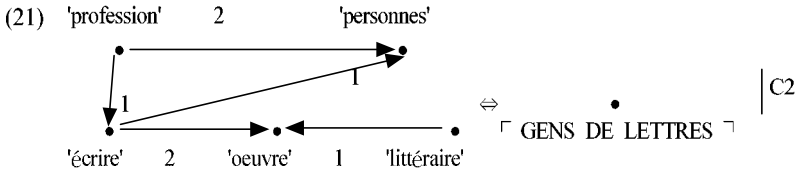
규칙으로 구성되는데 이 규칙들은 하위의미망을 하위 심층통사 수형도에 관계짓는 역할을 한다. 이 규칙들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7 과 2 은 결합·설명 사전의 항목에 포함된다.

7. 어휘-의미규칙 *règle lexico-sémantique* : 하위의미망과 심층어휘소를 대응시킨다. 이 규칙은 한 어휘소의 사전항목 *article de dictionnaire* 과 유사하다. 'persécuter 1'의 의미를 갖는 어휘소 PERSECUTER 1의 예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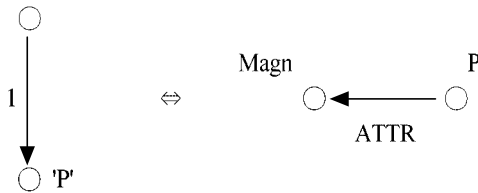
왼편은 'persécuter 1'의 의미분해 *décomposition de sens*로 이루어진 정의 *définition* 부분이며 오른쪽의 수형도는 대략 지배구조를 나타낸다. 밑줄은 의미적으로 지배적인 요소를 나타낸다. 또한 사전 항목이 어휘소의 의미·통사적 결합관계에 대한 정보, 즉 통사적 특성과 어휘합수를 포함하고 있듯이 어휘-의미규칙 하에서는 이런 정보들은 C로 표시되는 규칙의 조건부를 구성한다. 어휘-의미규칙의 수는 한 언어에 존재하는 어휘적 의미의 수와 일치하며 대략 백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2. 숙어-의미규칙 *règle phraséologico-sémantique* : 하위의미망과 숙어소를 대응시킨다. 숙어-의미규칙은 한 숙어소의 사전항목과 유사하며 그 수는 수천개 정도이다.



ㄷ. 어휘함수-의미규칙 *règle lexico-fonctionnelle sémantique* : 하위의미망과 어휘함수를 대응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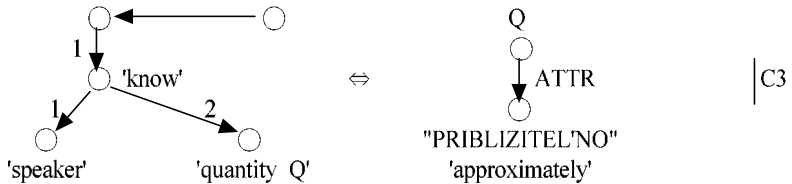
(22) 'intens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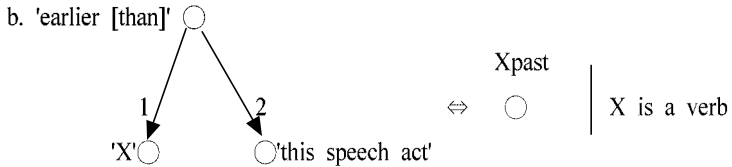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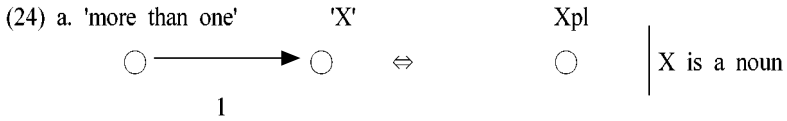
어휘함수 Magn는 어휘소에 '강화intensive'의 의미를 부여한다.

ㄹ. 통사-의미규칙 *règle syntaxico-sémantique* : 통사구문으로 실현되는 의미와 가상 어휘소를 대응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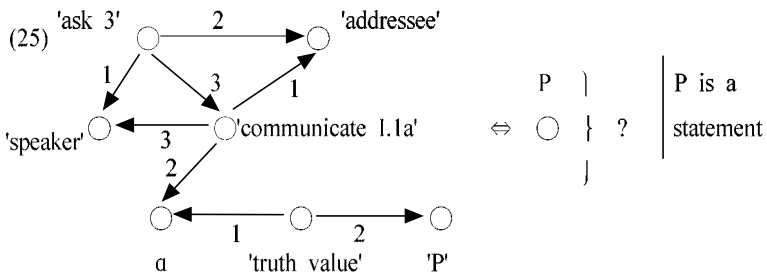
(23) 'exact' 1 '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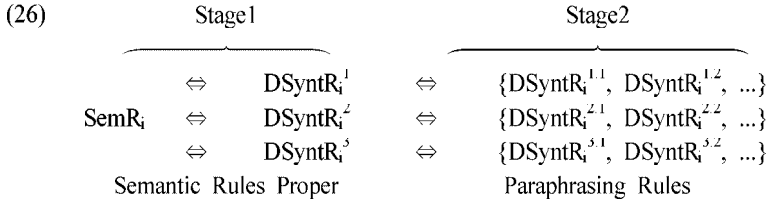
3. 형태화 *morphologisation* : 형태-의미규칙 *règle morphologico-sémantique*을 통해 의미표상에 나타나는 정보들 가운데 문법소로 실현되는 요소를 형태화한다. 이 연산은 표층통사부의 형태화와는 구분된다.



4. 통사화syntaxisation : 어휘화 연산을 통해 선택된 어휘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심층통사구조를 구축한다.
5. 주제화topicalisation : 의미-의사소통구조의 주제-설명, 구정보-신정보, 전체-단언 등의 구분에 따라 심층통사-의사소통구조를 구축한다.
6. 조용화anaphorisation : 의미표상을 바탕으로 심층통사구조에서 중복되는 어휘소들간의 공지칭 관계를 분석한다.
7. 음조화prosodisation : 음조-의미규칙을 통해 의미표상에 대응되는 문장이 갖는 음조를 선택한다.



8. 동의적 환언paraphrasation synonymique : 하나의 의미표상에 대응되는 모든 심층통사표상들을 구축한다. 이 연산은 어휘환언규칙règle de paraphrase lexicale과 통사환언규칙règle de paraphrase syntaxique²⁰⁾을 통해 수행된다²¹⁾.



(나) 심층통사부

심층통사표상과 표층통사표상의 대응관계를 구축하는 부분으로 다음의 7개의 연산이 이루어진다. 특히 1과 2의 연산은 결합·설명 사전의 항목에 제시된다.

1. 어휘함수 값 산정 : 심층통사표상에 나타나는 어휘함수의 값을 그 논항에 따라 결정한다.



2. 숙어소 분할 : 심층통사표상에서 하나의 마디로 나타난 숙어소를 실제의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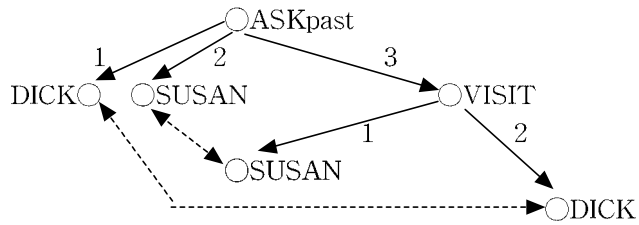
20) 두 규칙은 환언체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심층통사표상들의 동의관계는 환언체계를 통해 분석될 수 있다. 환언체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4절에서 전개된다.
 21) 언어적인 동의성은 의미부의 어휘화 조작에서도 확인된다. 즉, 어휘화 조작의 하위 규칙들은 의미망을 구성하는 의미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하며 이를 다른 어휘소에 대응시키며 모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층수형도 모형으로 분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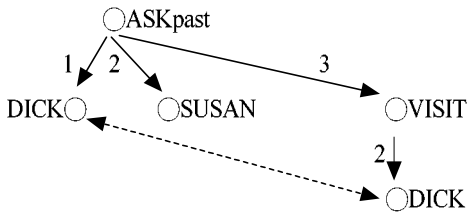
3. 동일명사구 삭제 : 조응 관계를 구성하면서 실제의 텍스트에는 실현이 되지 않는 모든 어휘소를 찾아 표시한다.

(28) a. Dick asked Susan to visit him.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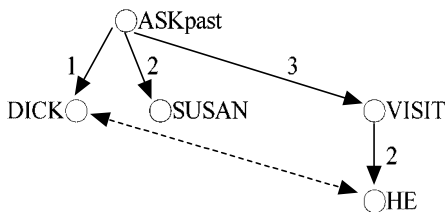
c.



4. 대명사화 : 조응 관계를 구성하면서 대명사로 실현되는 마디들을 대명사로 대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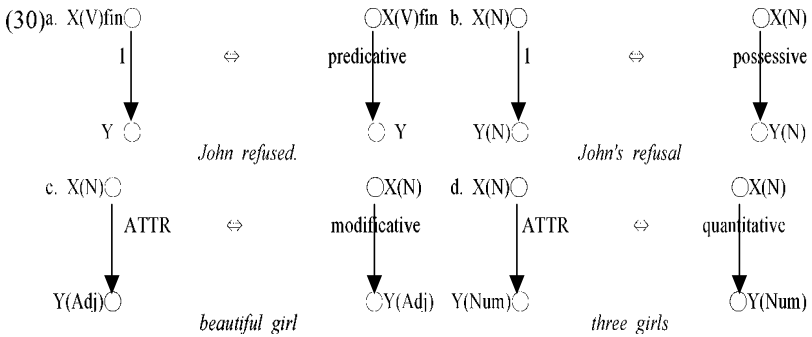
(29) a. Dick asked Susan to visit him.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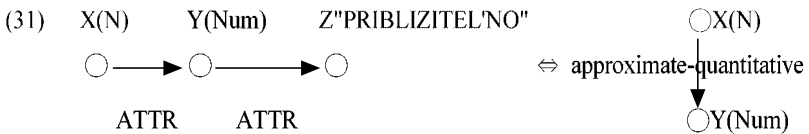


5. 표층통사구조 구성 : 심층통사규칙을 통해 표층통사구조가 구성된다. 이 규칙은 3 가지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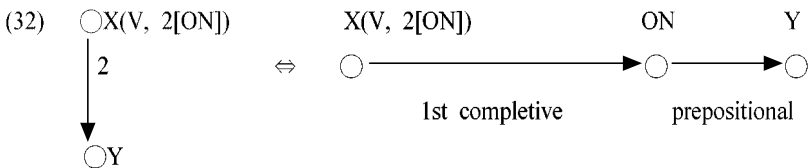
ㄱ. 심층통사 관계 ⇔ 표층통사 관계 대응규칙 : 심층통사 관계가 특별한 문맥에서 언어 고유의 표층통사 관계에 의해 표시된다.



ㄴ. 심층통사 마디 ⇔ 표층통사 관계 대응규칙 : 심층통사의 가상 어휘소가 표층통사 관계에 의해 표시된다.



ㄷ. 심층통사 관계 ⇔ 표층통사 마디 대응규칙 : 심층통사 관계가 기능어에 의해 표시된다.



X (V, 2[ON]) 표시는 어휘소가 동사임을 그리고 그 동사의 둘째 심층통사 논항이 DEFEND나 INSIST처럼 전치사에 의해 유도되는 구에 의해 표층통사구조 속에 표시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정보는 해당 어휘소의 사전 항목, 즉 지배도식에 기재되어 있다.

6. 표층통사-의사소통구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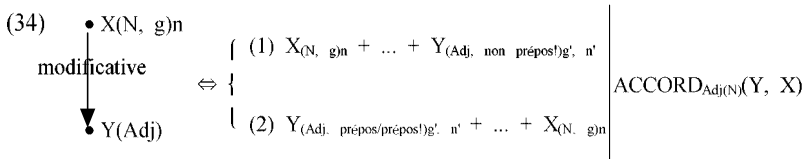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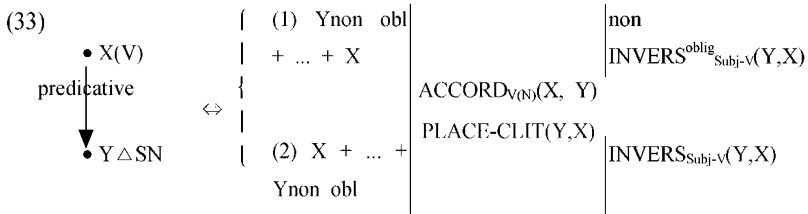
7. 표층통사-음조구조 구성

6과 7의 연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Mel'čuk의 논저들에 명시적으로 예시된 바가 없어 논의를 생략한다.

(다) 표층통사부

문장의 표층통사표상과 심층형태표상 사이의 대응관계를 구축하며 다음의 4개의 조작으로 이루어진다.

1. 형태화 : 명사의 격, 형용사의 성, 수, 격, 동사의 인칭, 수 등과 같이 통사적으로 조건지어지는 문법소를 결정한다. 즉, 일치와 지배관계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표층통사구조의 마디는 마디에 연결되어 있는 단어 형태의 완전한 심층형태표상을 갖게 된다.
2. 선형화linéarisation : 문장의 실제 어순을 결정하는 연산이다. 1의 형태화 연산과 2의 선적 배열 연산에 의해 표층통사구조의 마디가 형태적 표지를 갖게 되며 선적으로 순서에 따라 배열된다. 문장이 표층통사구조에서 심층형태구조로의 전이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예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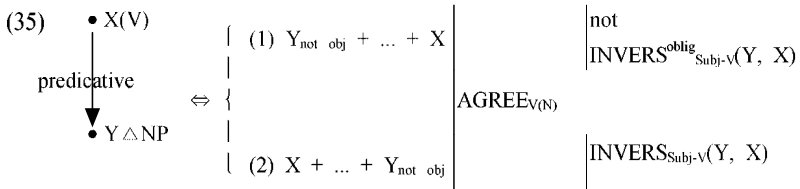


3. 표충통사-생략 : 문맥에 따라서 수의적인 또는 필수적인 다양한 축약과 생략이 이루어진다.

4. 음조화 : 표충통사-음조구조와 표충통사구조에 기초하여 휴지 및 음조가 결정되며, 이를 통해 문장의 구조가 결정된다.

표충통사부는 또한 다섯 가지 유형의 규칙들을 사용한다.

7. 연사syntagme²²⁾ 또는 표충통사규칙règle de syntaxe de surface : 표충통사구조의 형태화와 선적 배열 연산의 기본 도구로 사용된다. 다음 영어의 예를 살펴보자.



22) 성분구조문법의 연사 17 syntagme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표충통사규칙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Mel'čuk, I. & N. Pertsov (1987)과 Mel'čuk, I.(1988b)을 참고할 것.

표층통사규칙 (35)는 문법적 주어 NP를 갖는 술어구조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 문법적 주어는 대격의 형태를 띌 수 없으며 동사는 ‘일치규칙AGREE_{V(N)}’에 따라 반드시 문법적 주어에 일치해야 한다.
- 선적 배열상 문법적 주어는 ‘필수도치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동사 앞에 놓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동사 뒤에 놓이게 된다. ‘비필수도치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문법적 주어는 동사를 선행하거나 후행할 수 있다.

ㄴ. 기본 구들에 대한 패턴 :

(36) *these four interesting German books* vs. **German four these interesting books*

(36)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구의 구성요소들의 패턴을 결정한다.

ㄷ. 전반적인 단어 순서 규칙 : 주어진 표층통사구조의 가능한 최상의 단어 순서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료에 입각하여 결정된다.

- 연사에 나타내는 표시
- 주제-서술, 구정보-신정보의 구분
- 사전에 표시되어 있는 몇 어휘소의 특성
- 특별한 배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통사적 모호성을 피함

ㄹ. 생략규칙

ㅁ. 음조규칙

생략규칙과 음조규칙은 아직 Mel'čuk의 논저들에 명시적으로 기술된 바가 없어 논의를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의미·텍스트 이론과 그 모형에 나타나는 7 단계의 표상들과 6개의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언어 이론과 비교해 볼 때, 의미·텍스트 이론은 언어활동에 있어서 화자의 관점에 중점을 두므로 이 이론의 의미·텍스트 대응관계는 언어산출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언어산출 관점에서 부각되는 것이 문장간의 환언관계(relation de paraphrases)이다. 이 이론 내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의미표상에 대해서 다양한 통사표상이 대응될 수 있으므로 환언관계의 체계적 기술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용되는 하나의 새로운 언어적 장치가 어휘함수이다. 어휘함수는 어휘 단위들간의 계열적·통합적 관계를 잘 포착하여 일반 문법 규칙으로 예측 불가능하나 반드시 기술되어야 하는 어휘의 다양한 특성들을 총체적으로 정밀하게 보여준다. 3절과 4절에서는 어휘함수와 환언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3. 어휘함수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의미표상으로부터 텍스트로의 대응과정을 의미·통사·형태·음운 등의 규칙들과 다층적 표상을 통하여 기술하는 모형이다. 본 모형에서 텍스트를 구성하고 그 구조를 결정하는 어휘단위는 본 모형의 구성부인 의미부의 의미규칙들을 통해 선택·결정된다. 의미망과 어휘단위간의 대응관계를 구축하는 의미규칙들은 본 모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결합설명 사전의 개별 항목을 구성한다. 언어 산출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의미표상은 다양한 텍스트들로 실현될 수 있다. 즉 의미규칙에 따라 선택된 어휘단위는 이와 관계를 갖는 다른 어휘단위로 대체되어 동일한 의미의 수많은 텍스트들을 생성한다. 이와 같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휘단위는 의미부의 의미규칙에 따라 의미표상을 하위 의미망으로 분할하고 이에 대응되는 어휘단위를 선택·결정하고 이와 관계를 갖는 다른 어휘단위를 선택·결정하는 두 단계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이나 사실을 문자나 그림으로 표현한 종이를 묶은 물건’을 표상하는 의미망은 책이라는 어휘단위에, ‘four-wheel motor vehicle designed for individual transport of a few people...’의 의미망은 영어의 CAR라는 어휘단위에

대응될 수 있다(Mel'čuk, 1996). 이 경우, 의미망은 어휘의미에 해당하며 어휘단위는 이 어휘의미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다²³⁾. 한편 책이라는 어휘단위는 문맥에 따라 도서라는 어휘단위로 대체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책꽂이, 책상, 책가방 등과 같은 다른 어휘단위들과 결합하거나 보다, 읽다, 쓰다, 내다 등과 결합하여 동사구를 형성한다. 즉, 책이라는 어휘단위에 다른 어휘단위가 대응되며 이는 어휘단위들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어휘관계는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언어의 일반 의미규칙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7) ㄱ. 아주 심한 거짓말 — 새빨간 거짓말
 ㄴ. 아주 적은 봉급 — 쥐꼬리만한 봉급

(37)ㄱ-ㄴ은 모두 ‘형용사 + 명사’의 수식관계라는 동일한 통사구조를 갖지만 그 결합관계의 예측 가능성은 차이를 보여준다. (37)의 예에서와 같이 일반 의미규칙으로 예측되지 않는 어휘관계를 제도화된 어휘관계 *relation lexicale institutionnelle*라 부른다. 제도화된 어휘관계는 (37)에서와 같이 보통 비대칭적이며 의존적인 관계 *relation asymétrique et dépendante*를 보여준다.

- (37') ㄱ. 아주 심한 (거짓말+말+짓+행동) — 새빨간 (거짓말+*말+*짓+*행동)
 ㄴ. 아주 적은 (봉급+음식+양) — 쥐꼬리만한 (봉급+*음식+*양)

즉, 새빨간과 쥐꼬리만한은 각각 거짓말과 봉급이라는 어휘들과만 결합하며 그 밖의 다른 어휘들과는 자유롭게 결합할 수 없다. 제도화된 어휘관계는 그 예측불가능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상세한 분석과 기술이 요구되며 반드시 사전 항목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어휘기술은 언어사용과 교육을 위해 실용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어휘자료체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언어학적으로

23) 어휘의미와 어휘단위의 대응관계를 표상하는 의미규칙은 결합설명 사건의 정의항과 표제어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로도 매우 의의있는 작업이다. 더 나아가 컴퓨터를 이용한 텍스트 생성, 분석 및 자동번역 등의 응용분야에 있어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이다.

어휘함수는 의미·텍스트 대응모형에서 어휘단위들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으며, 특히 일반 의미규칙으로는 예측되지 않는 어휘단위들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어휘함수는 주어진 하나의 어휘단위와 다른 어휘단위의 관계를 나타내며 관계 자체가 어휘함수의 의미에 해당한다. 주어진 어휘단위를 L_1 , 이에 따라 선택된 어휘단위를 L_2 , 이들의 관계를 F 라고 한다면 어휘함수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F(L_1) = L_2$$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어휘함수는 수학적 의미에서 함수이며($f(x)=y$), L_1 를 함수의 논항argument 또는 키워드mot-clé, L_2 를 함수값valeur이라 한다. 함수의 키워드와 함수값이 모두 어휘단위 또는 어휘단위들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어휘함수라고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어휘함수는 어휘단위 간의 의미·통사 역할에 해당하는 매우 특징적인 의미이며 그 의미가 적용되는 어휘단위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되는, 즉 어휘적으로 제한된 어휘관계를 나타낸다.²⁴⁾

4. 환언체계

우리는 3절에서 어휘단위들간의 계열적·통합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나의 어휘단위가 다른 여러 어휘단위 또는 구와 대응될 경우 이를 표상하는 어휘함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휘함수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휘단위들을 다른 어휘단위들로 대체함으로써 동일한 의미를 갖는 수많은 텍스트의 생성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의미가 다양한 텍스트로 구현되는 점은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언어산출적 관점에서 중요한 언어적 현상

24) 어휘함수의 분류와 구체적인 예를 위해서는 이병근·박진호(2000)을 참고할 것.

으로 부각되며 이 모형에서는 이를 규칙들의 체계를 통해 기술하고자 한다.

의미·텍스트 대응모형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여러 언어적 표상들을 환언문paraphrase이라고 하며, 이들간의 관계를 환언관계라 한다. 환언관계의 토대가 되는 동의성은 엄격한 의미에서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의미표상은 의미를 상황 의미, 의사소통적 의미와 수사적 의미로 구분하여 표상하며 이 가운데 상황의미를 나타내는 의미구조를 주요구조로 삼고 있다. 환언관계에서의 동의성은 주요구조를 이루는 상황 의미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의미와 수사적 의미가 다른 구조를 갖는 경우에도, 상황의미가 동일하다면 환언관계가 성립하며 환언문으로 간주된다.

D. Bolinger는 “동일한 심층 구조(즉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표층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²⁵⁾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화자는 실제 언어사용에 있어 한 의미가 다양하게 표상되는 것으로 인지하며 실제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많은 어휘들도 적절한 문맥에서는 그 차이를 상실하고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를 문맥적 의미중화neutralisation sémantique contextuelle 현상이라 하며, 문장 사이의 동의성 분석에 중요하게 이용된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여 일상적 언어활동에서 화자가 사용하는 환언문을 그 기술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가운데 백과사전적 지식과 추론 능력이 배제된, 화자의 순수한 언어능력만으로 동의성이 확인되는 환언관계를 언어적 환언paraphrase langagière이라 하는데 이를 상세히 기술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은 현대 이론 언어학의 중요한 임무이다. 화자의 환언능력을 형식적 규칙의 체계système de règles formelles로 구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환언체계이다. 이 환언체계는 의미·텍스트 이론의 의미부에 포함되며 그 작동을 위한 어휘정보는 결합 설명 사전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자연언어의 환언 관계는 의미적 환언paraphrase sémantique과 통사적 환언paraphrase syntaxique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환언문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25) D. Bolinger(1977).

의 어휘가 다른 경우로 의미표상의 의미망에 다른 어휘소가 대응되어 나타나 는 환언을 뜻한다. 후자는 통사구조의 차이에 따른 환언으로서 사용되는 어휘는 동일하나 통사적 구성에 있어 차이가 난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의미적 환언이다²⁶⁾. 의미적 환언은 다시 의미규칙 *règle sémantique*에 의한 환언관계와 환언규칙 *règle de paraphrase*에 의한 환언관계로 구분된다. 전자는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구성부분인 의미부의 의미규칙에 의한 환언으로, 의미구조를 표상하는 의미망의 분배와 분할이 다르게 행해짐으로써 어휘소가 다르게 선택되는 관계이다. 후자는 어휘부의 어휘소들간의 의미관계에 의한 환언으로, 이미 분할된 하위 의미망에 대응하는 어휘소를 다른 어휘소가 대체 *substitution*하는 관계이다. 의미규칙에 의한 환언관계는 보다 심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의미론 작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직 그 연구가 미진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반면, 어휘들간의 계열·통합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환언규칙에 의한 환언관계는 어휘함수를 사용하여 체계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환언체계는 환언규칙에 의한 환언관계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환언체계는 어휘환언규칙 *règle lexicale de paraphrase*과 통사환언규칙 *règle syntaxique de paraphrase*으로 구성된다. 어휘환언규칙은 어휘함수가 표상하는 어휘단위들간의 대응관계를 통해 어휘소 대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술한다. 이 정보들 가운데, 어휘소 대체에 동반되는 통사구조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변형만을 분리하여 기술한 것이 바로 통사환언규칙이다.

(38) $C_{0(V)} \Leftrightarrow \text{Conv}_{21}(C_0)$

철수가(I) 영희를(II) 때렸다 $C_{0(V)}$

\Leftrightarrow 영희가(I) 철수에게(II) 맞았다($\text{Conv}_{21}(C_0)$)

26) 통사적 환언관계를 나타내는 통사적 변형은 이미 기존의 언어학 이론, 특히 변형 생성문법에서 증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환언체계에서는 의미적 환언관계에 동반되는 통사적 변형, 즉 통사 환언규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39) C_{0(V)} \Leftrightarrow S_0(C_0) \xleftarrow{\text{II}} \text{Oper}_1(S_0(C_0))$$

철수가 영희를 도왔다($C_{0(V)}$)

\Leftrightarrow 철수가 영희에게 도움을($S_0(C_0)$) 주었다($\text{Oper}_1(S_0(C_0))$)²⁷⁾

(38)의 어휘환언규칙은 어휘소를 상대관계에 있는 다른 단위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논항들의 문법적 기능과 실현되는 순서가 변형되는 반면, 동사를 기능동사 구문으로 대체하는 (39)에서는 키워드가 명사화되어 기능동사의 제2논항으로 실현되고 키워드의 제1논항이 기능동사의 제1논항으로 그 기능이 변형되고 있다.

어휘환원규칙은 의미의 등가성 *équivalence sémantique*이나 의미의 함축 *implication sémantique*을 어휘함수로서 표상된다. 위의 (38)과 (39)는 의미의 등가성을 나타내며 양방향 화살표로 표상된다. 반면 일방향 관계에 해당하는 의미의 함축은 일방향 화살표를 갖는다.

$$(40) \text{Caus}X(C_{0(V)}) \Rightarrow X(C_{0(V)})$$

방에 새로 가구를 들여놓았다($\text{Caus}(C_{0(V)})$)

\Rightarrow 방에 새로 가구가 들어왔다($C_{0(V)}$)

$$(41) \text{Liqu}X(C_{0(N)}) \Rightarrow \text{Fin}X(C_{0(N)})$$

차를($C_{0(N)}$) 세우다($\text{LiquFact}_0(C_{0(N)})$) \Rightarrow 차가($C_{0(N)}$) 서다($\text{FinFact}_0(C_{0(N)})$)

의미의 함축이 표상하는 관계는 어휘소들이 지시하는 사태들간의 논리적인 추론관계이다. 위의 (40)의 사역의 의미를 갖는 동사와 (41)의 정지의 의미를 갖는 동사는 사태의 실현과 종료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

등가성을 표상하는 어휘환원규칙은 어휘를 어휘함수로 대체하는 규칙과 어휘함수를 동일한 논항의 다른 어휘함수로 대체하는 규칙으로 나뉜다. 이 규

27) 본고는 의미·텍스트 대응모형의 환언체계의 표기법을 따라 환언규칙에서 대체되는 어휘단위 $C_{0(V)}$ 로, 어휘함수를 통해 대체하는 어휘단위는 $F(C_{0(V)})$ 로 표상한다.

칙들은 다시 $X \leftrightarrow Y$ 관계인 대치substitution와 $X \leftrightarrow Y+Z$ 인 분할fission로 구분될 수 있다.

(42) $C_0 \Leftrightarrow \text{Syn}(C_0)$

Ce phénomène s'explique facilement(C_0)

(이 현상은 쉽게 설명된다)

\Leftrightarrow Ce phénomène s'explique 「 sans difficulté \neg (Syn(C_0))

(이 현상은 어려움없이 설명된다)

(43) $\text{Cont}(C_0) \Leftrightarrow \text{Fin}(C_0) \xrightarrow{\text{ATTR}} \text{NE...PAS}$

건강을(C_0) 유지하다($\text{Cont}(C_0)$) \Leftrightarrow 건강을(C_0) 잃지($\text{Fin}(C_0)$) 않다

어휘환언규칙에 동반되는 통사환언규칙은 다음의 3개의 통사 조작으로 구성된다.

- (1) 하나의 마디를 두 개의 마디로 대체하는 분할 조작과 두 개의 마디를 하나의 마디로 대체하는 융합fusion 조작
- (2) 하위 마디에 연결된 가지를 상위 마디에 연결하는 전이transfert 조작
- (3) 가지에 부여된 표지를 바꾸는 재표지réétiquetage 조작

이 세 조작은 기본적인 것으로, 합성되어 다른 통사 조작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위마디와 하위마디를 뒤바꾸는 전도inversion de la subordination는 아래와 같이 표상될 수 있다.

(1) 분할 : $B \Rightarrow B \rightarrow A$

(2) 융합 : $A \rightarrow B \Rightarrow B$

(3) 전도 : $A \rightarrow B \Rightarrow B \rightarrow A$

전술했듯이²⁸⁾ 심층통사구조의 가지는 9개의 관계만을 표상하며 마디는 동

일한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가치를 동시에 갖지 못한다. 따라서 3개의 통사조작과 심층통사구조의 9개의 관계를 이용하여 심층통사구조의 기본 통사변형 transformation élémentaire을 모두 열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합성 통사조작들을 기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법을 수형도 문법 dendrogrammaire/grammaire d'arborescence이라 한다.

그러나 이 기본 통사변형은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환언체계의 기술은 자연언어의 통사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분석까지도 요구한다. 따라서 자연언어의 통사현상에 해당하는 기본 통사규칙 règle syntaxique de base의 목록을 구축하고 이들을 사용하여 통사환언규칙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사환언규칙은 어휘환언규칙에서 문제가 되는 마디가 갖는 통사적 변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대체되거나 분할되는 마디의 통사적 변형은 이 마디와 연결된 다른 어휘들의 통사적 기능의 변화를 동반한다. 기능동사구문으로의 환언을 보여주는 (39)에서 동사 **돕다**는 그 통사적 범주와 기능이 변형되고 동시에 종속어들의 통사적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표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통사환언규칙이 주변 어휘들의 통사적 변형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표상하지는 못하고 있어 새로운 규칙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 규칙들은 모든 통사환언규칙을 통제하는 일반 조건의 성격을 띤 메타규칙에 해당한다. Mel'čuk (1992)에서는 몇 가지의 메타규칙의 예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아직 행해지지 않고 있다.

- (1) 메타규칙1 : 규칙 R이 적용될 경우, 규칙과 관계없는 모든 마디는 다른 메타규칙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본래의 심층통사관계에 따라 지배어에 연결된다.
- (2) 메타규칙2 : $X \Rightarrow Z \rightarrow Y$ 의 규칙 R의 경우, R과 관계없는 X의 종속어들은 Z와 Y에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28) 2.2.1.의 (나) 심층통사표상 참조.

- X의 I 논항은 Z에 결합된다.
- X의 II-VI 논항은 Y에 결합된다.
- X의 상황수식어(modificateur circonstanciel)은 Z에 결합된다.
- X의 품질수식어(modificateur qualitatif)는 Z가 의미가 없는 기능동사일 경우 Y에 결합되며 Z가 의미를 갖는 동사일 경우 Z에 결합된다.

환언체계를 구성하는 어휘환언규칙과 통사환언규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1) 동의성에 대한 설명에서 지적했듯이 어휘환언규칙에 의한 환언문이 반드시 엄격하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합·설명사전 내의 어휘항목 기술을 참고하여 환언문간의 동의성을 판단·통제한다.
- (2) 어휘환언규칙은 통사·어휘·문맥적 제약들과 의미-의사소통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제약들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려 없이 환언규칙을 기술한다.
- (3) 환언규칙은 경험적으로만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된 목록이 모든 환언규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목록의 일부 규칙들은 더 일반적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다른 규칙들의 조합으로 설명이 가능하므로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더 심화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1. 환언규칙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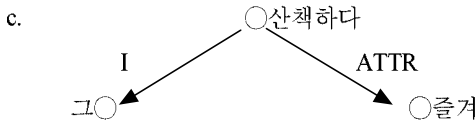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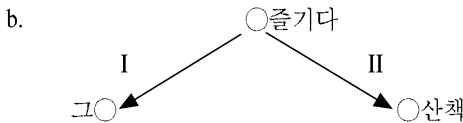
환언규칙에 사용되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다.

- (1) C_0 는 규칙이 적용되는 어휘소에 해당하며 동시에 어휘함수의 논항을 가리킨다. 또한 어휘소가 특정 품사범주로 한정되는 경우 이를 아래 지수로 표기한다. 가련 동사인 경우에는 $C_{0(v)}$ 라고 표기한다.

- (2) C_0 의 심층통사 논항은 I, II, III, ...으로 표기한다.
- (3) 어휘환언규칙에 동반되는 통사환언규칙의 영향을 받는 마디들은 X, Y, Z, W로 표기한다.
- (4)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환언규칙의 영향으로 지배어가 변하는 경우, 새로운 지배어가 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A, B, C 등의 표기를 사용한다. 이 때, A는 C_0 의 I논항이며, B는 II논항, C는 III논항에 해당한다.

(44) a. 그는(I) 산책을(II) 즐긴다(C_0)

⇔ 그는(I) 즐겨(Adv_{IB}(C_0)) 산책한다



구체적으로 환언규칙을 예들과 함께 살펴보자²⁹⁾.

A. 의미상의 등가 관계

A. I. $C_0 \Leftrightarrow FL(C_0)$ 유형

A. I.1. 대치

A. I.1.1. 동의적 대치substitution synonymique

29) 더 자세한 환언규칙의 예들에 대해서는 Mel'čuk(1988a, pp.37-42)와 Mel'čuk *et al.* (1992, pp.37-45) 참고.

1. $C_0 \Leftrightarrow \text{Syn}(C_0)$

철수는 영희와 결혼을(C_0) 한다
 \Leftrightarrow 철수는 영희와 혼인을($\text{Syn}(C_0)$) 한다

A. I. 1.2. 전환(역관계) 대치(substitution converse)

2. $C_{0(V)} \Leftrightarrow \text{Conv}_{21}(C_0)$

철수는(I) 영희를(II) 이겼다(C_0)
 \Leftrightarrow 영희는(I) 철수에게(II) 졌다($\text{Conv}_{21}(C_0)$)

A. I. 1.3. 파생적 대치(substitution dérivative)³⁰⁾

3. $C_{0(V)} \Leftrightarrow \text{Adv}_{1A}(C_0)$

「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 \neg (I) 놀랍다(C_0)
 \Leftrightarrow 놀랍게도($\text{Adv}_{1A}(C_0)$) 그가 거짓말을 했다

A. I. 1.4. 환유적 대치(substitution métonymique)

4. $C_{0(V)} \Leftrightarrow \left(\begin{array}{c} S_1\text{Real}_1(C_0) \\ S_1(C_0) \end{array} \right) \left(\xrightarrow{\text{II}} C_0 \right)$

자동차는(C_0) 언덕에서 속력을 줄였다
 \Leftrightarrow 운전기사는($S_1\text{Real}_1(C_0)$) 언덕에서 속력을 줄였다

A. I. 2. 단순 분열(fission simple)

A. I. 2.1. 계사 분열(fission à copule)

5. $C_{0(V)} \Leftrightarrow \text{Conv}_{12\text{-est-3}}(C_0) \xrightarrow{\text{II}} \hat{\text{ÊTRE}}$

이것을(II) 최선의 해결책으로(III) 칩시다(C_0)
 \Leftrightarrow 「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neg 칩시다($\text{Conv}_{12\text{-est-3}}(C_0)$)

30) 본 환언관계는 C_0 가 부사로 파생되고 있으므로 부사 대치substitution adverbiale라고도 한다.

A. I. 2.2. 否定 분열(fission à négation)

6. $(C_{0(V)} \quad) \Leftrightarrow \text{Anti}(C_0) \xrightarrow{\text{ATTR}} \text{NE...PAS}$
 $(\hat{\text{ÊTRE}} \rightarrow C_{0(A)} \quad)$
 철수는 용감하다($C_{0(A)}$)
 \Leftrightarrow 철수는 비겁하지 않다($\text{Anti}(C_0) \xrightarrow{\text{ATTR}} \text{NE...PAS}$)³¹⁾

A. I. 2.3. 기능동사 분열(fission à verbe support)

7. $C_{0(V)} \Leftrightarrow S_0(C_0) \xleftarrow{\text{II}} \text{Oper}_1(S_0(C_0))$
 철수가 영희를 도왔다($C_{0(V)}$)
 \Leftrightarrow 철수가 영희에게 도움을($S_0(C_0)$) 주었다($\text{Oper}_1(S_0(C_0))$)

A. I. 2.4. Gener 분열(fission à Gener)

8. $C_0 \Leftrightarrow \text{Gener}(C_0) \xrightarrow{\text{ATTR}} A_0/\text{Adv}_1(C_0)$
 중얼거리다(C_0) \Leftrightarrow 중얼중얼($\text{Adv}_1(C_0)$) 말하다

A. I. 2.5. 환유·은유적 분열(fission métonymique ou métaphorique)

9. $C_0 \Leftrightarrow \text{Figur}(C_0) \xrightarrow{\text{ATTR}} C_0$
 침체(C_0) \Leftrightarrow 침체의 늪($\text{Figur}(C_0)$)

A. I. 3. 복합 분열(fission complexe)

10. $C_{0(V)} \xrightarrow{\text{ATTR}} \text{Adv} \Leftrightarrow (S_{\text{mod}}(C_0)) \xleftarrow{\text{I}} \text{Pred} \xrightarrow{\text{II}} A$
 $(S_0(C_0) \quad)$
 영희는 단호하게(Adv) 말했다($C_{0(V)}$) \Leftrightarrow 영희의 어조($S_{\text{mod}}(C_0)$)는 단호했다(A)

31) 한국어 형용사는 술어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Mel'čuk 등이 제시한 환언규칙 $\hat{\text{ÊTRE}} \rightarrow C_{0(A)}$ 은 한국어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대신 한국어에는 계사 $\hat{\text{ÊTRE}}$ 가 없는 환언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A. II. $FL_1(C_0) \Leftrightarrow FL_2(C_0)$ 유형

A. II.1. 대치

11. $Oper_1(C_0) \Leftrightarrow Oper_2(C_0)$

철수가 영희에게 욕을(C_0) 했다($Oper_1(C_0)$)
 \Leftrightarrow 영희가 철수에게서 욕을(C_0) 먹었다($Oper_2(C_0)$)

A. II.2. (否定) 분열(fission (à négation))

12. $Liqu(C_0) \xrightarrow{II} C_0 \Leftrightarrow Caus(Anti(C_0)) \xrightarrow{II} Anti(C_0)$

평화유지군은 동티모르 지역의 분쟁을(C_0) 종식시켰다($Liqu(C_0)$)
 \Leftrightarrow 평화유지군은 동티모르 지역에 평화를($Anti(C_0)$) 가져왔다
 ($Caus(Anti(C_0))$)

B. 의미상의 함축 관계

13. $CausX(C_{0(N)}) \rightarrow IncepX(C_{0(N)})$

절망에($C_{0(N)}$) 빠뜨리다($CausFact_0(C_{0(N)})$) \Rightarrow 절망에($C_{0(N)}$) 빠지다
 ($IncepFact_0(C_{0(N)})$)

5. 맺음말

이 글은 I. Mel'čuk의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을 간략하게 소개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선 이 모형의 기본 전체와 구성을 소개하였으며 이 모형에서, 어휘단위 사이의 다양한 결합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도입하는 어휘함수와 언어산출적 관점에서 강조되는 환언체계의 유형을 정리해 보았다.

이상에서 소개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의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전형적인 어휘부 중심의 언어 연구 모형으로 개별언어 어휘부의 실질적 구축을 목표로 하여 개개 어휘요소의 언어적

속성을 총체적·총망라적으로 기술하려고 시도하므로 통사부 중심 이론에 대한 대안, 자연 언어 처리 영역에의 기여, 또는 언어 교육이나 일반 언어사전 편찬 분야 등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 내에서 어휘기술에 사용하는 어휘함수의 개념은 전통적인 어휘론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한 어휘단위 사이의 다양한 새로운 대응관계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어휘관계를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어휘부에 표상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론을 제공하였다. 어휘함수를 통해 기술된 어휘관계는 대부분 어휘단위 사이의 제한적 어휘공기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성있는 문법규칙에 의해 형식화되거나 예측될 수 있는 어휘대응이 아니므로 어휘부 표상이 필수적이다. I. Mel'čuk의 어휘함수의 개념은, 이와 같은 다양한 공기적 표현을, 그 기저의 일반적인 의미·통사관계의 포착에 근거하여, 다시 말해 언어학적으로 의의있는 준거에 따라 형식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한국어 어휘자료체 구성을 위해 원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론, 특히 어휘단위 사이의 다양한 대응관계에 대한 정보를 형식화하여 일관성있게 표상하는 데에는 대단히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모형은 한국어 사전의 항목 기술에도 직접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국면을 가지고 있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지적 가능한 여러 이론상, 방법론상 의문점 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치밀하고 풍부하게 구성된 어휘자료체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언어학 연구와 관련된 여러 인접 영역 - 기계번역, 모국어/외국어 교육, 단일어/이개어 사전 편찬 등의 작업 - 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어휘연구의 모형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우리는 효율적인 한국어 단일어 사전의 구축을 위해 이 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어 어휘의 일부를 표본적으로 기술해 보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참 고 문 헌

- Apresjan, Y.D. *et al.* (1969). «Semantics and Lexicography : Toward a new type of unilingual dictionary», in *Studies in Syntax and Semantics*, édité par F. Kiefer, Dordrecht, Reidel.
- Bor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London—New York, Longman.
- Cohen, B. et L. Elnitsky (1985). «Un nouveau type de dictionnaire utile aux traducteurs: le DEC du français moderne», *Meta* 29-2.
- Dik, S. (1978). *Functional Grammar*, Amsterdam, North-Holland.
- _____. (1980). *Studies in Functional Grammar*, London, Academic Press.
- _____. (1989). *The Theory of Functional Grammar, Part 1 : The Structure of the Clause*, Dordrecht, Foris.
- Dostie, G., Mel'čuk, I. et A. Polguère (1992). «Le comment et le pourquoi dans l'élaboration des entrées lexicales du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REPROCHER, REPROCHE et IRRÉPROCH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5-3.
- Fontenelle, T. (1997). *Turning a Bilingual Dictionary into a Lexical-Semantic Database*, Tübingen, Max Niemeyer.
- Frawley, W. (1988). «Relational models and metascience», in *Relational Models of the Lexicon*, édité par M.W. Eve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ss, M. (1975). *Méthodes en syntaxe : le régime des constructions complétives*, Paris, Herman.
- Heringer, H.-J. (1970). «Einige Ergebnisse und Probleme der Dependenzgrammatik», *Der Deutschunterricht*, 4.
- Heylen, D. (1995). «Lexical functions, generative lexicons and the world», *Computational Lexical Semantics*, Saint-Dizier, P. and Viegas, E.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dson, R. (1993). «Dependency Syntax : Basic Ideas and the Classical Model»,

- Syntax :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Volume 1, Walter de Gruyter.
- Lépinette, B. (1988). «Les définitions des émotions en français et en espagnol», *Revue québécoise de linguistique* 17-2.
- _____. (1989). «Vers un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bilingue: bases théoriques et élaboration de quelques articles», *Cahiers de lexicologie* 54-1.
- Mel'čuk, I. (1973). «Towards a linguistic 'Meaning-Text' Model», in *Trends in Soviet Theoretical Linguistics*, édité par F. Kiefer, Dordrecht, Reidel.
- _____. (1974). «Esquisse d'un modèle linguistique du type 'Sens-Texte'», in *Problèmes actuels en psycholinguistique, Actes des Colloques internationaux du CNRS 206*, Paris, Edition du CNRS.
- _____. (1988a). «Paraphrase et lexique dans la théorie linguistique Sens-Texte», *Lexique* 6.
- _____. (1988b). *Dependency Syntax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_____. (1988c). «Paraphrase et lexique dans la théorie linguistique Sens-Texte. Vingt ans après», Ire partie, *Cahiers de lexicologie* 52-1.
- _____. (1988d). «Paraphrase et lexique dans la théorie linguistique Sens-Texte. Vingt ans après», 2e partie, *Cahiers de lexicologie* 53-2.
- _____. (1989). «Semantic Primitives from the Viewpoint of the Meaning-Text Linguistic Theory», *Quaderni di Semantica* 10-1.
- _____. (1993). «La phraséologie et son rôle dans l'enseignement/apprentissage d'une langue étrangère», *E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92.
- _____. (1995). «The Future of the Lexicon in Linguistic Description and the Explanatory Combinatorial Dictionary»,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3, Seoul, Hanshin.
- _____. (1996). «Lexical functions: a tool for the description of lexical relations in a lexicon» in L. Wanner(ed.)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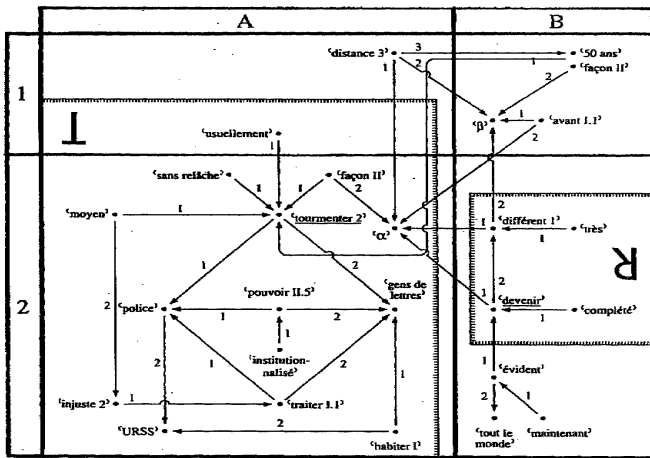
- _____. (1997). *Vers une linguistique Sens-Texte. Leçon inaugurale*, Collège de France, Chaire internationale.
- Mel'čuk, I., A. Clas et A. Polguère (1995), *Introduction à la Lexicologie Explicative et Combinatoire*, Editions Duculot.
- Mel'čuk, I. and A.K. Zolkovskij (1970). «Towards a functioning 'Meaning-Text' Model of Language», *Linguistics* 57.
- Mel'čuk, I. and A.K. Zolkovskij (1971). «Construction d'un modèle actif de la langue: 'sens ⇔ texte'», in *La Sémantique en U.R.S.S. Document de Linguistique Quantitative*, Association Jean-Favard.
- Mel'čuk, I. and A.K. Zholkovskij (1984). *Explanatory Combinatorial Dictionary of Modern Russian* [en russe], Vienne, Wiener Slavistischer Annnach.
- Mel'čuk, I. and A.K. Zolkovskij (1988). «The Explanatory Combinatorial Dictionary», in *Relational Models of the Lexicon*, édité par M.W. Eve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l'čuk, I. and A. Polguère (1987). «A Formal Lexicon in the Meaning-Text Theory», *Computational Linguistics*, vol. 13, Numéros 3-4.
- Mel'čuk, I. and C. Robitaille (1988). «Nutrition et lexicographie, Le champ lexical 'Nourriture'», *Revue québécoise de linguistique*, vol. 17, n° 2.
- Mel'čuk, I. and N. Pertsov (1987). *Surface Syntax of English : A Formal Model within the Meaning-Text Framework*, Amsterdam-Philadelphia, Benjamins.
- Mel'čuk, I. et al. (1981). «Un nouveau type de dictionnaire : le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six entrées de dictionnaire)», *Cahiers de lexicologie* 38-1.
- Mel'čuk, I. et al. (1984).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Recherches Lexico-Sémantiques I*, Montréal,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Mel'čuk, I. et al. (1988).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Recherches Lexico-Sémantiques II*, Montréal, Les Presses de

- l'Université de Montréal.
- Melčuk, I. and al. (1992).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Recherches Lexico-Sémantiques III*, Montréal,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Nakhimovsky, A. (1983). *Meaning—Text Linguistics and the Problem of Voice*, Carbondale U.S.A.1 Edmonton, Canada: Linguistic Research Inc.
- _____. (1990). «Word Meaning and Syntactic Structure: Some comparative Notes» in J. Steele (1990).
- Ramos, M.A. (1991). «Verbes supports et fonctions lexicales», *Lingvisticae Investigationes XV*:1.
- Ramos, M.A., Tutin, A. and G. Lapalme (1995). «Lexical Functions of the Explanatory Combinational Dictionary for Lexicalization in Text Generation», *Computational Lexical Semantics*.
- Steele, J. (1990). *Meaning-Text Theory: Linguistics, Lexicography and Implications*,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 Tesnière, L. (1965). *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Klincksieck.
- Wanner, L. (ed.) (1996). *Lexical Functions in Lexicography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Wanner, L. (ed.) (1998). *Recent Trends in Meaning-Text Theor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이병근·박진호(2000), «결합설명 사전의 어휘 기술 방법론», *인문논총* 4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정수영(1992), <의미·텍스트> 대응모형 속에서의 어휘기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재성 (1995a), «어휘함수 개념에 의한 한국어 어휘기술과 사전편찬», *해방 50주년—세계 속의 한국학*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_____ (1995b), «의미·텍스트 대응모형에 따른 불어어휘의 연구: 어휘함수 개념의 활용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3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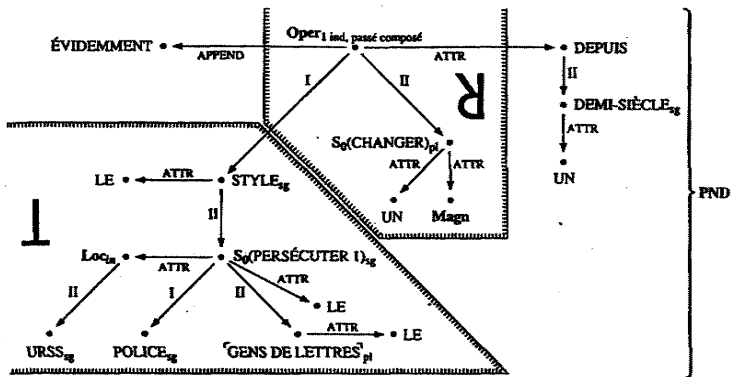
부록: 예문 (4)의 각 표상

(4) Le style des persécutions policières des gens de lettres en Union Soviétique a évidemment connu, depuis un demi-siècle, des changements sérieu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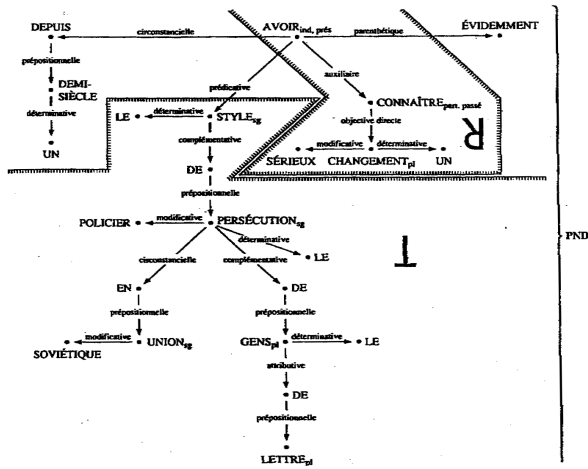
1. 의미표상



2. 심층통사표상



3. 표층통사표상



4. 심층형태표상

LE_{masc.sg} STYLE_{sg} DE LE_{fém.sg} PERSÉCUTION_{sg}
 POLICIER_{fém.sg} DE LE_{masc.pl} GENS_{pl} DE
 LÉTTRE_{pl} EN UNION_{sg} SOVIÉTIQUE_{fém.sg} ||
 AVOIR_{ind.prés.3sg} ÉVIDEMMENT
 CONNAÎTRE_{part.passé} DE_{masc.pl} CHANGEMENT_{pl}
 SÉRIEUX_{masc.pl} DEPUIS
 UN_{masc.sg} DEMI-SIÈCLE_{sg} |||

5. 표층형태표상

{LE} + {MASC.SG} {STYLE} + {SG} {DES} {PER
 SÉCUTION} + {PL} {POLICIER} + {FÉM} + {PL}
 {DES} {GENS} {DE} {LÉTTRE} + {PL} {EN}
 {UNION} + {SG} {SOVIÉTIQUE} + {FÉM} +
 {SG} || {AVOIR} + {IND.PRÉS} + {3SG} ...

■ Résumé

Etude sur le modèle Sens-Texte d'I. Mel'čuk

Chai-Song Hong et Dong-Ho Pak

Département d'Études Françaises,
Faculté des Sciences Humaines,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Le but de cet article est de présenter dans ses grandes lignes le modèle Sens-Texte d'I. Mel'čuk. A cette fin, nous avons d'abord introduit l'organisation de ce modèle :

— Nous avons caractérisé les niveaux de représentations linguistiques adoptés dans ce modèle, c'est-à-dire, la représentation sémantique, la représentation syntaxique profonde, la représentation syntaxique de surface, la représentation morphologique profonde, la représentation morphologique de surface, la représentation phonologique profonde et la représentation phonologique de surface.

— Ce modèle possède sept composantes principales, c'est-à-dire, la sémantique, la syntaxe profonde, la syntaxe de surface, la morphologie profonde, la morphologie de surface, la phonologie profonde et la phonologie de surface.

Ensuite, nous avons expliqué de façon succincte le système des fonctions lexicales. Pour finir, nous avons montré le système de paraphrases. A partir d'une représentation sémantique, le modèle Sens-Texte produit l'ensemble des phrases porteuses du sens correspondant à cette représentation sémantique. Le mécanisme-clé qui assure cette production est le système de paraphrases et il fait partie de la composante sémantique du modèle.